

장성군, 농업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호응’

배양센터 생산 미생물 150t 관내 8천190농가 지원
고초·광합성·효모·유산균 등 4종...땅심 ↑악취 제거

장성군이 올해 농업유용미생물 150t을 농가에 무상 공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은 12일 “올해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서 8천190농가에 150t 규모의 미생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친환경 농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7년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준공해 운영 중이다. 또 생산된 미생물을 관내 농가에 전량 무상 공급하고 있

어 매년 농업미생물을 이용하는 농가수와 공급량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장성군이 배양센터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은 고초·광합성·효모·유산균 등 4종이다. 고초균은 다양한 효소분비로 퇴비를 생성시키고 병충해를 방지하며 가축사료의 소화율을 높인다. 광합성균은 시설작물의 연작장해를 해

소하고 작물의 생육생장을 촉진하며 가축의 체중 증량에 도움을 준다. 효모와 유산균은 땅심을 증진하고 가축사료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축사악취 제거에는 네 가지 균 모두 효과가 좋다. 올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균주 바실러스 벨레젠시스(GH1-13)를 시험 배양해 토마토, 지황 재배농가에 현장 실증했다. 그 결과 무저리구에 비해 생산량이 8~10% 증가했으며 병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고사율이 높은 복분자에 길항미생물(Pseudomonas chlo

roraphis)을 투입, 토양 및 식물체 병원균을 분리하고 뿌리 활력을 강화시키는 실증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미생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주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미생물 생산·공급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실증시험포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추진해 유용미생물의 효과와 활용법을 안내하고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비자와 농업인



장성군이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 생산된 미생물을 관내 농가에 전량 무상 공급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이 만족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8

일간 미생물 사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의 요구에 맞춰 농업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가사문학면 환경개선 담양군가사문학면(면장 정선미)은 최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지역사회단체, 공무원, 주민 등이 함께하는 깨끗한가사문학면 만들기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40여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환경보존을 위해 쓰레기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 가사문학면 경성리의 구지방도 일대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기 이전 사용되던 도로로 인적이 드물어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곳이다. /담양군 제공

장성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팔목 성과

상무대 5개 학교 18회 방문·교육생 521명 전입

장성군이 상무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운영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입신고팀은 2월부터 12월까지 상무대 5개 학교를 총 18회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대위 교육생 521명이 장성군으로 전입했다. 상무대가 위치한 삼서면의 주민등록 인구는 11월 말 기준 3천653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76명이 증가했다. 상무대에는 현재 장교, 부사관, 병사 등 6천2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장병들이 많아 장성군은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질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영내 거주하는 직업군인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장성군은 평일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장병 교육생들의 입교일에 맞춰 직접 부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을 시작했다. 전입신고팀은 전입신고와 장성군 전입장려금(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신청

을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상무대 장병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홍(洪)길동무 꽃길축제 등 군의 축제와 관광명소, 맛집 등을 소개해 장병들이 장성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등록 인구증가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방교부세 확보 등 자주재원 원가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전년 대비 한단계 ↑...공직윤리교육·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담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담양군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군이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 등 2개 전문기관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경험이 있는 군

민, 소속직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 도출한 결과다. 올해 담양군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 기준 8.27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8.19점보다 높았다. 지난해 종합 3등급에서 1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담양군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를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청백 e-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자기진단, 청렴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로 스스로 청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정군태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감사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적극 행정 실천으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최형식 담양군수, 농업대상 ‘최우수상’

제도 개선·지자체 최초 농업연구사 채용 등 호평

최형식 담양군수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농업인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농정분야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 공로를 치하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시상 분야는 국가농정분야, 지방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분야, 농업인분야, 농산업분야 등 5개 분야로 최형식 군수는 지방농정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군수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초대·2대 회장을 맡아 농촌의 상생발전 모색에 앞장서 왔으며 농업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민·관 협치 농정을 통

한 농업정책 추진, 유통경로 다각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자체 최초로 농업연구사 4명을 채용해 담양 딸기 신품종 육종에 성공, 로열티 절감은 물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했으며 ‘대숲맑은 담양 쌀’은 9년 연속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최형식 군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토대로 소득 높은 부자 농업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장성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교육

장성군은 12일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한 뒤 장성축협 생축장으로 이동,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로 퇴비사 교반과 퇴비화 방법에 대한 현장 견학활동을 시행했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 65~70%로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의무화 시행 이후에는 퇴비장에 퇴비 보관 시 부숙된 퇴비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나눠 관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시에는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장성=김문태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기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 원우를 모십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은?

창조·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복합 마인드 함양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 에듀솔빙 워크숍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모집인원 100명내외
- 교육기간 2020년 1월21일(화) 개강 ~ 6월30일(화) 종강 (1년 과정, 연 12회 강차)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호텔식사 제공)
- 강의장소 여수 히든베이호텔
- 수강료 280만원(부가세포함),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 2019년 12월말
- 발표및등록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010-8785-8151
- 접수방법 서류전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영합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추후 원우회 수첩제작시 반영되므로 명확히 기재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cukbdb@naver.com 팩스 062) 650-2019
주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구동 1-21)